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하상주보

2018년 7월 1일 (나해)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제169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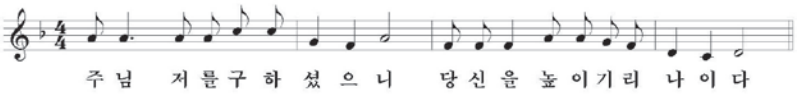
〈하혈하는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3세기 말, 벽화, 베드로와 마르첼니누스 카타콤바, 로마, 이탈리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마르 5,34)

[제1독서]……지혜 1,13-15; 2,23-24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ㄱ과 13ㄴ
(◎ 2ㄱ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2독서]…… 2코린 8,7.9.13-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복음] ……마르 5,21-43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4] 내 맘의 천주여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성체성가: [160] 하느님의 어린양
  [174] 사랑의 신비
- 파견성가: [39] 하나되게 하소서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때에 21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22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23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24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 댔다. 25 그 가운데에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26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27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28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9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30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31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 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32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33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3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35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36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38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39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40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42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43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묵상

회당장 야이로는 열두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이 죽게 된 사실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예수님께 딸의 치유를 청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미 죽은 딸아이를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비웃는 사람들을 뒤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십니다. "탈리타 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버지와 딸, 억울하고 한 많은 두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남에게 부끄러워 말도 못하는 하혈 병을 앓는 여인이 병을 치유받으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군중 틈을 헤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별 수단을 다 써 보았지만 지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밀쳐 대는 군중의 단순한 호기심의 손길과는 달리 치유를 간절하게 원한 손길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절함 속에서 하느님을 갈망하는 한 인간의 진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으로 말미암아 깨진 균형을 맞추시려고 스스로 가난을 택하시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십니다. 궁핍은 언제나 제 몫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옵니다. 한정된 재화를 누군가 더 소유하면 내 주변에 그 누군가가 궁핍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경제적 정의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가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의 균형, 사회적 균형, 경제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병과 슬픔, 차별과 편견, 위선과 교만의 병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면 하느님께 무엇을 청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혹시… 남는 방 있나요?"

방명준 라우렌시오 보좌 신부

똑똑똑!
"계세요? 안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

한 남자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문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그런 그의 눈에 멀찌감치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입니다.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있는 아내는 많이 힘겨워보였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자, 자신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슬쩍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은 더욱 바빠집니다.

똑똑똑! 똑똑똑!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노크 소리에 담긴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는지,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낯선 이의 노크 소리에 짜증이 난 것처럼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나옵니다. 그는 어렵사리 아주머니께 이야기합니다.

"혹시… 남는 방…"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없어요."

왠지 돈이 없을 것 같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아주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닫힌 문 앞에 서 있던 그는 다시 아내의 손을 잡고 다른 방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방을 찾지 못한 그들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바로 **'예수님'** 입니다.

이를 두고 루카복음 저자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루카 2,7)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이 방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그들에게 방을 내줄 **'마음 자체'** 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마리아의 배속에 있던 아기가 **'하느님의 아들'** 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없던 방' 도 만들어서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분도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들도 '남는 방' 이 있는지 묻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없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먼저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며칠 전 월요일로 기억됩니다. 점심을 먹고, 텅 빈 주차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차를 몇 대나 세울 수 있는지 궁금해, 신부님과 함께 헤아려보았습니다. 오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약 38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넓은데도, 주일마다 공간이 부족하다니…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일마다 일어나는 '주차대란' 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도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주차 문제' 였기 때문입니다.

매 주 주차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인원은 부족하고, 또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거나, 심지어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금지된 곳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까지.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차장이 더 넓어야한다고. 지하를 파든지, 2층, 3층으로 더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는 방이 있어도, 내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주차장은 넓어져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풍족하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적어도 아니어야 합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남는 방이 많아도, **"없어요."** 를 먼저 생각하면 그것은 **'없는 것'** 이 됩니다.

하지만 집도 작고, 남는 방이 없어도, **"있어요."** 를 먼저 생각하면 그것은 **'있는 것'** 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 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따스한 마음'** 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주차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우리들이 미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똑똑똑! "혹시… 남는 방…"

'나 자신' 밖에 모를 때가 많은 우리들의 굳게 닫힌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그분의 노크 소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1기 액티브시니어 기본교육

본당의 성요셉 아버지학교(지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가 주관하는 제1기 액티브시니어 기본 교육이 지난 6월 24일 오후 12시부터 네 시간 반 동안 열렸다. 좁은 강의실 때문에 4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음에도 처음 열리는 액티브시니어 교육에 관심을 가진 신자들의 열정으로 총 52명의 수강자가 참석했다.

제1교시에는 자화상을 보며 인생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으로 시작했다. 바쁘게 젓던 노를 내려놓고 차분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조별 그룹 나눔 시간에는 자신이 겪은 다양한 사건과 굴곡을 되새기며 삶의 의욕을 되살려 보는 시간도 가졌다.

제2교시에는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펼쳐질 "가장 빛나고, 가장 뜨겁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위한 긴 여정" 의 여행가방을 준비했다. 나의 꿈과 소명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2막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조별로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나누는 수강자들의 밝은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다.

제3교시에는 은퇴자들의 공통적인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건강과 빈곤, 고독과 역할 상실에 관해 공부했다. 이 네 가지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 돈, 일과 여가 활용, 그리고 배우자 및 가족관계를 잘 준비하여 백 세 시대에 축복받는 액티브 시니어의 삶을 살자고 다짐하였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참가자들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강의에 열중하는 수강자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수강자들

류익희(아오스딩 · 82세)

나이가 들고 삶에 적극적이지 못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액티브시니어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나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신자들에게 보급되기를 바란다.

김경희(마리아 · 53세)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모르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에서 보호를 받은 역할로 변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인생그래프를 통하여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버킷리스트 작성을 남편과 작성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었는데, 강의 중에 있었던 버킷리스트 관리 방법은 나와 배우자의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나와 배우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겠다.

액티브시니어 강사 박성태(야고보 · 68세)

베이비부머(1946-1964)와 그 선배(1930-1945) 세대로 형성된 100세 세대들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100세 시대를 처음으로 살아가는 세대다. 100세 세대들에게 노후준비를 미리 계획할 것을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다.
21세기의 삶의 공식은 30+30+30+알파이다.
세 번째 30년은 두 번째 30년의 삶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액티브시니어 교육은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퇴 후의 시니어 삶을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는 방법을 알리는 교육이다.
40-50대 젊은 층에게도 꼭 필요한 교육이니만큼 다음 교육에 많이 참석하여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했으면 좋겠다.

2018

Senior Banquet

Congrats !!!!

Dear CYO graduated seniors,

Congrats to the seniors! We wish you the best for your future lives. Remember to come out to church, join Raphael, and continue your faith as a Catholic.
It was a pleasure teaching you guys, and we hope to see you soon!

Dear CYO students,

Thanks for a great year. It was a challenging, yet memorable year for all the teachers. Thanks for sticking it out with us. Next year will be even better!
We appreciate your input during the last day of class, and we hope to help make CYO a better, stronger, more cohesive group.
Please continue to come out to mass; we love seeing your beautiful faces! Hope to see you at camp! We are very excited as this year's camp will be better than last years!

-Sincerely,

Your CYO teachers:

Bona ssn, Mike ssn, Elaine ssn, Moon ssn, John ssn, Jennifer ssn, Peter ssn

CCD

CCD SUMMER CAMP

- **When:** **Aug. 3rd** (Fri.) - **Aug. 5th** (Sun.)
- **Where:** **Pine Creek Retreat Center,** 1794 Back Creek Road, Gore, VA 22637
- **Who:** **Rising 4th - Rising 8th Graders**
- **Registration Fee:** **$120** per participant

* **Sibling Discount:** $100 per participant for two or more children from the same family

- **Registration**: **Sundays, June 24th - July 22nd** (after 8am, 10am & 11:40am Mass) at the Parish Hall
- **For questions or more information,** contact Camp Director, *Mr. Yongwoo Kwon*(Stephano) at **571-244-0333**

이 주일의 묵상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마르 5,41)

19세기 러시아 민중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일리아 레핀(Ilya Repin, 1844-1930)은 1871년에 〈야이로 딸의 소생〉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레핀은 러시아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듯 어린 딸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아이의 머리맡에는 하얀 꽃이 놓여있고, 회당장 야이로는 흰 모자를 쓰고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두 손 모아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이의 어머니와 세 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도 가슴을 부여잡고 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으며, 제자들도 그 부모 뒤에 근엄하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 아버지의 바람대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입니다.(마르 5,41)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과 분위기와는 달리 부드럽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살 소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너의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지."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그냥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어인 '야이로' 라는 이름에는 '주님이 비추신다.',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을 통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생명으로 일으켜주셨고, 하혈하는 여인을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체를 통해 우리를 비추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성체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에 손을 대며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새 영세자와 예비신자들 성지순례

본당의 새 영세자와 예비신자들이 지난 17일(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쉬라인(National Shrine)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지난 2월에 세례받은 77차 영세자들과 오는 8월에 세례받을 78차 교리반의 예비자 및 가족 등 32명은 선교부원, 교리교사들과 함께 북미주에서 가장 큰 성당인 내셔널 쉬라인 12시 미사에 참례한 후 성당 내부를 돌며 지난 해 100년만에 완공된 1400만개의 타일로 만들어진 삼위일체 돔 등을 돌아보았다. 특히 이날 성당 투어에는 안윤민 바실리오 교육부장이 동행하여 성당 내부 돔은 물론 1층에 있는 동상 및 벽면을 수놓은 많은 조각 등에 대해 한국어로 설명해 주어 영어가이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도왔다. 원철희 토마스 선교부장은 "이곳 성지순례는 예비자 교육 과정 중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가톨릭의 오랜 유산과 전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성지순례 프로그램은 새 영세지들이 성당 공동체에 뿌리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해부터 시작되어 올해 두번째로 실행됐다.

요한회 야유회

나눔터에서 친교

50대 교우들의 활동단체인 요한회(회장 박동성 미카엘)는 지난 24일(일) 성당 나눔터에서 6월 월례회 겸 야유회를 갖고 회원 상호간에 친교를 나눴다.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하반기 활동계획을 점검했다. 특별히 이 날 모임은 새로 가입한 이봉근 베드로 부부 등 6명의 신입 회원을 위한 환영파티가 더해져 더욱 뜻깊었으며 즐거운 대화와 바비큐를 나누며 우정을 다졌다.

K of C 주최 청소년 후원 Car Raffle 당첨자 발표

- Honda Civic: Robert Land (St. Jude)
- Buick Verado
  Richard Buck (St. John Neuman)
- GMC Truck: Eliana Oranges (Nativity)
- Honda CRV
  Mary C, Darr (St. Timothy)
- Odyssey Van
  Antony J. Lavallais (Holy Trinity)

1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7월 1일(일) 오후 1시(B-1)

2 청소년 사도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1일(일) 오후 1시(A-2)

3 7월 구역봉사자 교육 없습니다.
•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4 병자 영성체
• 일시 : 7월 6일(금)
• 신청 : 조영인 요셉 형제 (703)264-0050

5 성체강복
• 매월 첫째 금요일(7월 6일) 미사 후에 "성체강복"을 거행합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참석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단체장 회의
• 일시 : 7월 8일(일) 오전 11:30(B-3,4)

7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7월 8일(일) 오후 1시(B-3,4)

8 공동체 기도회 모임 소식
• 7월에는 소공동체 모임이 없습니다.
• 다음 소공동체 모임은 8월 둘째 토요일에 있습니다.
•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9 CYO 여름 캠프 신청
• 신청 : 미사 후(8시, 10시, 11시 40), 친교실
• 일정 : 7월 19일(목) - 7월 22일(일)
• 대상 : 9학년 - 12학년
• 장소 : Camp Round Meadow, MD
• 문의 : 이희존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10 주차장 이용 안내
• 주일학교 방학 기간(6월 24일 - 9월 2일)에는 교사 주차 공간을 모든 교우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하상 주보 광고비 납부
• 하상 주보 광고주 여러분들은 광고비를 결산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 주일

'교황 주일' 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전 세계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6월 29일)과 가까운 주일에 기념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주일을 맞아 ①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 직분을 수행하는 교황이 그 직분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②교황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③교황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을 봉헌합니다.

교황을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의 목자요 임금이신 하느님,
친히 주님의 일꾼 (프란치스코)를
거룩한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프란치스코)가 말과 모범으로
신자들을 보살피다가 맡은 양 무리와 함께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여름 휴가 중 가까운 성당 및 미사 시간 찾기

인터넷에서 www.masstimes.org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교황주일 2차 헌금

전 세계적으로 교황주일에는 교황님의 사목활동을 돕고자 특별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전 세계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빈곤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3주간 : 1 역대 1-6, 요한 16-17장**

KACM TV 하이라이트

7월 5일(목) 오후 5:00-6:00
7월 6일(금) 오후 8:00-9:00
7월 8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특별기획 치유 (6) :** 성모병원의 역사 /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60년대 초 새로운 성모병원이 위용을 들어낸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6월 24일(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주일헌금	$ 7,380.00
교무금	$ 9,71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3,170.00
특별헌금	$ 500.00
2차헌금	$ 0.00
합계	**$ 20,760.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옛 IBM 파킹장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주차장 ↔ 성당 간 셔틀버스 시간표 ▷

주차장 → 성당	오전 7:20 - 7:50 (매 10분 간격) 오전 9:20 - 10:20 (매 10분 간격)
성당 → 주차장	오전 11:15 - 11:45 (매 10분 간격) 오전 11: 55 - 12:30 (봉사자 차량)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종(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고필순(젬마), 백명수(마리아),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벅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월 1일(일)	연중 제13주일	레지오 마리애(오전 8시), 구역 봉사자 모임 없음,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3)
2일(월)	연중 제13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3일(화)	성 토마스 사도 축일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4일(수)	연중 제13주간	평일미사(오전 11시), 미국 독립기념일 사무실 휴무,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성서 통독반(오후 7:30, A-1), 하상 한국학교 휴교
5일(목)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평일미사(오전 6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6일(금)	연중 제13주간	병자 영성체(오전 9시), 평일미사와 성체강복(오후 7:30, 성당), 회장단 회의(오후 8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7일(토)	연중 제13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파티마 사도직 쎌모임(오후 6시, 성당), 파티마 첫 토요 심신(오후 6:15)
7월 8일(일)	연중 제14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재속 프란치스코 월례회의(오전 11:30, 하상관),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또)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성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봄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